

안녕하세요

수만회에서 치즈라는 닉으로 수만취멘토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르비닉 특조는 그냥 즉흥적으로 지음;;)

핏수분들 많은 오르비지만 그래도 글쓰김에 오르비분들도 보시라고 오르비에 올립니다...;

도움되시길바래요.. +땃글도요



1. 사탐공부, 언제부터?

사실, 문과분들의 경우에는 사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과의 과탐은 꽤나 중요한데 말이죠.

언수외가 10 배이상 더 중요하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현역분들은 탐구 1 과목과 언수외 1 과목의 공부비중을 똑같이 잡으시는 등 탐구에 열정을 쏟는 경우가 없는데

수능 끝나고 후회해요. 진짜로... (아픈 기억이..)

그래도 사탐을 무시하다간 의외의 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분들이라면 솔직히 작년에 공부했으니까 지금은 안해도 될거같아요.

참고로 저는 반수할 때 사탐 6 월부터 시작했고 과목당 주당 1 시간? 정도만 했네요.

그 정도로 사탐 위 그렇게 까먹지도 않아요

현역분들은 지금 많이는 하지마시고 가볍게 개념만 한번 돌려주세요

기출문제 풀 욕심 ㄴㄴ 강 기초만 잡으시길.

어차피 6 평도 사탐전범위 출제안되요.

방학때 개념만 잡으시고, 6 평전까지는 6 평범위까지는 완벽히 공부해놓으시다.

2. 대원칙

우선, 탐구과목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 내신을 준비함과 동시에 수능이 준비되는 효과 -> 공부부담 감소

- 단, 고 3 때 가르쳐주는 게 효력이 큼. 고 2 때 가르쳐주는 건 사실 별 효과 없을 수도..(어차피 진정한 수능 준비는 고 3 때니..)

- 참고로 저는 국사, 근현대사, 사회문화 선택했는데 국사는 고 1 때, 근사, 사문은 고 2 때 배운 거여서 3 학년 때 수능이랑 무관한 공부하느라 좀 짜증났음.

- 학교에서 아예 안 가르쳐주는 과목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솔직히... 이걸 좀 비추...

학교수업 듣는 게 개념 한번 더 돌리는 효과가 있는데..

● 흥미있는 것, 재밌는 것

-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공부도 잘 되서 성적도 잘 나와요

- 사실 재밌는 건 강 직감적으로 재밌겠다! 라는 운명적인 느낌이 들 수도...

- 밑에 과목별비교의 그림참조,,

● 응시자가 많은 과목

- 수능도 '시험'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됨.

- 응시자가 적을 경우, 자료구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기출문제도 잘안팜. 제본해야될걸요 아마), 내용이 매니악할 수 있으며, 백분위같은게 다소 불안정할 수 있음.(인원이 적은 학과에 원서질하는거 생각하시면 될듯)

3. 논술과의 연관성

윤리와 사상

-> 인문계 논술에서 자주나오는 철학적지문의 이해에 도움...물론 대부분은 윤사에 없는 사상가들의 글을 따오긴 하지만 가끔 윤사의 사상가가 나오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렇다고 배경지식의 지나친개입은 ㄴㄴ) 생활윤리

->서울 상위권대학들은 아니지만 아마 중하위권부터는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텐데 미리 생각해놓으면 도움은 될듯,

역사과목들

->근거들을 때 사례로 역사적 사건을 쓰기에 아주좋은

사회문화

->사회학적 글이 논술에 아주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음. 교과서발체는 거의다 윤리 아니면 사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글이 나와서 글쓸때 좀 더 용어를 세련되게 쓸 수 있겠죠

경제

->일부대학에서 경제가 도움되게 나옴. 서강대였나 그때 수요공급곡선나와서 멘붕 ㄹㄹ

4. 크게크게 비교

일단, 사회탐구는 크게는 윤리군(윤리와사상, 생활윤리), 지리군(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군(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군(사회문화, 경제, 법과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석적순구

암기적순구



그림에서 보시는대로, 역사는 암기하는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일반사회는 외우는거 싫어하시는분이 하면 됩니다. (이게 흥미)

저는 외우는거 싫어하는데요.

서울대간다고 국사선택하고서 시너지효과낸다고 근사택했는데

주력사탐(사회문화, 아랍어,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백분위 96~7 고정이었어요. 가끔 2등급도 뜨고...;;

얼마나 흥미가 중요한지 알겠죠?

5. 작게작게 비교

과목별로 제가 알고있는대로,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들은거 종합해서 써드릴게요.
별은 저의 주관적인 추천도니까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댓글달아주시면 다른사람들이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윤리와 사상 ★★★



기존 수능의 '윤리' 과목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14 수능부터는 생활윤리와의 시너지효과로
선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사상가의 핵심 사상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합니다. 외우다보면 좀
헛갈릴수도.

그러나 암기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고득점의 열쇠는 해석력이 쥐고있습니다.
가끔 모의평가에서 너무너무 해석력을 요구한 나머지 1등급 컷이 40 밑으로 떨어지는 극악의
난이도를 연출하시지만

수능에선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쉽게나오는 경향이 강한듯...아마 최근에는 다 변별력을 좀
상실한채로 나왔을걸요

그치만, 많은편의 응시자수 +적절한 암기와 해석으로 큰 취향 ~+생윤과 시너지가 있기때문에
추천

참고로 윤리와사상하고 생활윤리는 이왕 하는거 세트로 선택하시는게 아주 좋을거같음.. 아주..

● 생활윤리 ★★



신설과목. 까놓고 말해서 굳이 만들필요가 있었는지가 의문...

기존 윤리 자체도 양많은 편이 아닌데도 그걸 분리해서 나와서 윤리와 사상과 함께하면 금상첨화.
더군다나 변별력가능성있는 파트는 윤리와사상과 겹칠 것으로 보여 윤리와사상과 함께라면 거의
공부량이 반이상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웹사이트에서 변별력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중.

내 기억으로는 고 1 때 도덕내신 4 등급맞고서 모의고사 10 문제는 다맞춘듯. 도덕에서 과연 어렵게
낼 수 있을까요??

출제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보기에도 이름부터 꼴스멜이 살살나기때문에 만점맞고
백분위 99 도 안나올수도 있을듯.,

이거 선택하시는분들은 윤사랑 같이선택해서 공부량 파팍 감소시킨다음에

절대 놀지말고 연수외에 집중투자하시길. 혹시나 쉽게나오면 연수외로 때울 수 있게.

● 한국지리 ★★



기존 수능 응시자수 2위. 가끔 1 위할때도.

ㅇㅈㅈ쌤이 있다는걸로 축복받은 과목인듯. 인강보면서 폭소를 터뜨리던데 한지 비선택자로써 한번 들어보고싶을정도. (이과생도 궁금해서 들어본다던데 ㅋㅋㅋㅋ 아 저도 OT 라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기 위에 그림에서 지리군이 왜 암기쪽에 더 치우쳐있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지도해석도 있지만 만점에 가까워질 수록 요구하는 암기가 세세해져요.. (제가 내신준비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짜잘한거 많음,,,; 특산물같은거 무슨 재미로 외우는건지 ㅋㅋ) 경제지리랑 통합되서 해석문제가 늘라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응시자수가 많으니까 할만함.

●세계지리 ★



저 이거 선택한다는사람 이제까지 한명인가 본듯. 뭐라 해드릴말이 없네요.. 응시자수 꼴찌 (앞에서 응시자수 적은건 비추라고 써놨죠?)

●한국사 ★



'나는 서울대못가면 아쉬워서 +1 수 해야할 거 같다'아니면 비추.

기존 국사랑 근현대사를 합친건데, 국사만으로도 버거웠던걸 근사까지..

근사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1 등급 가르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비중높다고 거기서 어려운거 나오는거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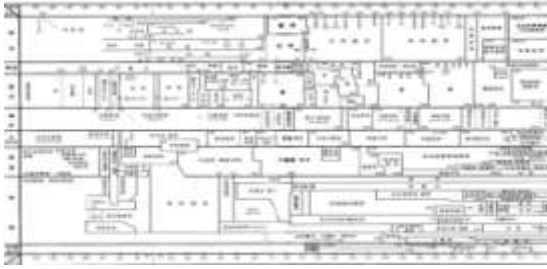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입장에서는 국사도 꽤 세세하게 공부해야할 가능성이..

그리고 등급도 잘 안나오고 시간도 많이 뺏겨요

저 현역때 서울대간다고 국사 파다가 국사 2 등급뜨고 연수외망해서 반수때 국사버리고 연수외 몰빵해서 성공한듯;;

역덕도 안하는게 좋을듯;; 서울대 안갈꺼면

●세계사 ★



역사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좋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 비추
 응시자수 적고, 암기량도 많음. 그리고 수능때 컷 48 일때가 많음.
 그래도 역사 좋아하던 제친구는 즐겁게 공부하고 즐거운 점수를 받던데.. <<의미는 알아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만한듯

●동아시아사 ★★



신생과목이라서 잘 모르는데 왜 별 두개를 줬냐면..
 세계사를 선택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고, 신생과목의 메리트가 있기때문.
 신생과목은 기출문제가 없는대신 이걸 배운 재수생도 없기때문에 현역분들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재수생분들은 현역때 탐구 이미 파이널까지 돌려서 거의 다 아는 상태에서 또 공부합니다.
 탐구에선 특히특히 현역이 불리할 수 있지만
 재수생이 없기때문에 나름 괜찮은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문화 ★★★



기존수능 응시자수 1위. 암기량 매우적음.
 생활윤리보다 적은지는 생활윤리를 안배워봐서 모르겠는데 개념정리 A4 용지 한 2 장정도면 됨.
 대신 악랄한 말장난의 표문제를 출제해서, 사탐 전체과목중 가장 많이 해석력을 요구해요.
 저같이 암기 싫어하시는분들은 이거 강추강추합니다. 표문제는 기출문제로 연습하고 츳구쌈
 표풀이강의 들으면 마스터.
 통수과목이라는 말이 있지만 경지에 오르면 공부 1년봐도 1등급 ㄱ
 (제가 경험자. 근데 저는 왜 수능에서 2점짜리 2문제를 틀렸을가요? 가채점땀 몰랐는데 성적표에
 그렇게뜨던데 미스테리.)
 개념이 워낙적어서 문제들이 거의다 미니-국어영역같이 나옴.
 다만... 사탐선택과목이 2개로 줄지만않았어도 이 글에 사문하라고 도배를했을텐데,
 2개선택 2과목반영에서는 하나라도 망하면 안되기때문에 멘붕되면 X되는 사문이 쪼오곰
 위험할수도..
 그래도 난이도변별도 잘되고 응시자수많고 암기량적은 강추과목

●경제 ★



수능 난이도 헬헬헬헬로 나올 때가 아마 경제가 제일 많을듯...;;
대성모의고사 성적표보면 탐구선택별 연수외평균점수인가 그거있는데 딱 국사랑 경제가 높았어요
국사는 서울대때문이라쳐도 경제는 굳이... 잘하는애들 틈에서 있을 필요가..
경제는 대학가면 좋지만 입시용으로 별로인거같아요

●법과정치 ★☆



기존수능의 법과사회와 정치를 합쳐놓음.
사실 예전 정치는 암기혐오증환자들에게는 사문과함께 꿀과목에 가까웠는데 법이들어가서 이젠
암기에 가까울듯 ㅠ
일반사회과목들 중 가장 많이 암기량 요함.
법과사회가 정확히 얼마나 그대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법과사회는 양이 꽤
많았...(내신때 짜증나서 접어버림 ㅠ)
하지만 일반사회과목군 답게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해석력도 필요함.
암기력도 해석력도 동시에 꽤 많이 필요로하는과목이라 별 두개를 못줬어요.... 어려워
그치만 법좋아하시는 분에겐 추천. 법조인되고싶은 제 친구는 고정 1 이더라구요

+ 덧붙여, 사탐은아니지만 제 2 외국어 선택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전 아랍어 선택하고 2년동안 근사보다 잘봤습니다 ㅋㅋㅋ
아랍어는 모의평가때는 응시자가 만명도 안되다가 수능때는 3만~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수가 엄청 많다는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안합니다. 양도 안많구요...
충분히 사탐대체로 고려할만합니다.
다만 아랍어가 개편된다던데... 좀 어려워질꺼같네요
베트남어로 하시는것도 좋을듯.
다만 아랍어랑 베트남어 중 허수가 어디가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

이거 하나쓰는데 이렇게 오래걸릴 줄 몰랐는데 너무 오래걸렸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나 다른의견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혹시 재수와 반수또는 시간관리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다른 주제 추천을 해주시면 다음 칼럼에
참고하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수만휘분들 의외로 댓글 안달아주시더라고요..ㅠㅠ 조회수 100 에 댓글 2 개..
댓글을원합니다 댓글.